華嚴密敎的 原型으로서의 五臺山 曼荼羅

金 永 材*

目 次

Ⅰ. 서언
Ⅱ. 가람만다라
1. 대산문수신앙
2. 관음지장신앙
Ⅲ. 산천만다라
1. 소재기복도량
2. 호국불국토도량
Ⅳ. 화엄만다라
1. 일승법계
2. 오방오불
Ⅴ. 결어

Ⅰ. 서언

오대산 신앙 및 사상체계는 일대만다라이다. 5방, 5색, 5불을 바탕으로 화엄, 인왕, 반야, 법화, 열반 등의 경전사상과 예참법 및 결사, 그리고 문수, 관음, 지장 등의 화엄 밀교적 사상이 어우러져 금강계 만다라와 호환될 수 있는 기본 틀을 구성하고 있다. 이를테면 한국불교의 핵심 사상과 신앙체계가 원융무애하게 오대산에 자리잡고 일천 삼백년을 내려온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화엄밀교라 할 때는 이 나라 불교의 뼈대가 되어 있는 禪脈에서의 큰 흐름인 화엄을 바탕으로 하되 호국불교와 밀교의례 및 전통신앙까지 포용할 수 있는 청정만다라, 가람만다라 및 산천만다라의 큰 틀이 이미 신라시대에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이 강조된 표현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오대산 신앙이 자리잡고 있다.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박사과정

Ⅱ. 가람 만다라

오대산 가람배치의 중심은 적멸보궁이다. 이곳이 태백산맥에 속하는 오대산의 비로봉에서 흘러내린 산맥들의 중앙이며 오대산 사상의 중심이다. 상원사에서 볼 때 서북쪽으로 약 1.5km 거리에 중대 향각인 노전이 있고 다시 600-700m 산길을 올라간 곳에 적멸보궁이 위치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산세를 살펴보건대 용이 날면서 여의주를 희롱하는 형국이며 머리부분이 보궁이라고도 한다.

적멸보궁은 자장이 불사리를 봉안한 곳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작 보궁에는 불사리가 없다. 그리고 불사리를 모셨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만큼 보궁 안에는 불상이 안치되어 있지 않다. 또한 보궁 뒤에 약 1m 높이의 마애불탑이 새겨진 판석이 세워져 있지만 역시 그 곳에 불사리를 모셨다는 근거는 없다. 그러므로 적멸보궁은 오대산의 지형적 중심이면서 오대산사상의 구심점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돋보일 따름이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오대산의 다섯 봉우리는 오류성중의 주처로 믿어졌다. 중앙의 地爐峯에 비로자나불과 문수보살이, 동쪽의 滿月峯에 관음보살이, 남쪽의 麒麟峯에 지장보살이, 서쪽의 長嶺에 무량수불과 대세지보살이, 북쪽의 相王峯에 석가불과 오백아라한이 머문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중대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암자를 지어 동대 서대 남대 북대라 불러 불보살들을 예참했던 것이다. 아래의 도표는 월정사 관련 서적들과 중보문헌비고[1] 및 삼국유사[2]에서 발췌, 구성했다.

---

1) 「輿地考11」, 『增補文獻備考』 卷23(朝鮮硏究會版, 1908 大正6年=1918), p.165.

2) 『三國遺事』 「臺山五萬眞身」

"溟州(古河西府也.)五臺山寶叱徒太子傳記 五臺進敬禮拜, 靑在東臺<滿月形山>, 觀音眞身一萬常住; 南臺<麒麟山>, 八萬菩薩爲首一萬地藏菩薩常住; 白方西臺<長嶺山>, 無量壽如來爲首一萬大勢至菩薩常住; 黑掌北臺<相王山>, 釋迦如來爲首五百大阿羅漢常住; 黃處中臺<風爐山>, 亦名<地爐山>, 毗盧遮那爲首一萬文殊常住; <眞如院>地, 文殊大聖每日寅朝化現三十六形(三十六形見)"

<도표>

방위	오대	해당사암	현재 오대산 명칭	증보 문헌비고	삼국유사	상주오불 (유사)
중	중대	문수암 사자암 적멸보궁 진여원	비로봉(1563m)	智爐	風爐山 地爐山	비로자나 일만문수
동	동대사	관음암	동대산(1434m)	滿月	滿月形山	일만 관음진신
서	서대사	수정암 미타방	호령봉(1560m)	長嶺	長嶺山	무량수 1만대세지
남	남대사	지장암 기린대	기린산(1301m)	麒麟	麒麟山	팔만보살 일만지장보살
북	북대사	미륵암	상왕봉(1493m)	象王	相王山	석가여래 오백대아라한

이러한 오류성중 사상에서도 중심은 비로자나불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문수사상이 중심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오대산 신앙의 중심은 적멸보궁의 문수신앙이 된다. 그것은 중국의 오대산 문수신앙에서 비롯되었으되 한걸음 나아가 신라 전체를 불국토라고 생각했던 신라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잘 말해준다.

1. 대산문수신앙

문수사상의 근원은 중국 山西省 太原府 五臺縣의 동북 140여리에 있는 이른바 오대산이다. 淸凉山이라고도 한다. 보현의 아미산, 관음의 보타락가산과 함께 중국 삼대 영산의 하나로 불려진다.

동진 때부터 시작된 중국 오대산 신앙의 사상적 배경은 동진의 불타발타라가 번역한 육십화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육십화엄의 보살주처품 제27에 이르되,

> 또 동북방에도 보살들이 사는 곳이 있는데, 이름은 淸凉山으로서 과거에

> 모든 보살들이 살았고, 현재는 문수사리라는 보살이 살면서 일만 보살을 권속으로 두고 항상 그들을 위해 설법하고 있습니다[3].

라 했던 것이다. 중국인들은 그 청량산이 바로 오대산이라 믿었다. 그 오대산 사상을 신라에 이식했던 것이 慈裝律師였다. 문수신앙의 신라화를 꾀했던 자장으로서는 문수보살이 중국보다 신라와의 인연이 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했을 것이다. 그 확실한 징표가 물적 증거요, 정통성의 확보였다.

적멸보궁에 봉안했다는 불사리는 자장법사가 중국의 오대산, 즉 청량산에서 문수보살의 감응으로 얻었다고 했다. 선덕왕 5년(636년)왕명으로 입당한 자장은 청량산 청량사의 태화지 문수대성 석상 앞에서 7일간 발원기도하여 꿈에 四句偈를 얻는다. 梵語라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튿날 스님 한 분이 사구게를 해석해준다. 대산문수신앙이 화엄에 바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呵囉婆佐曩(가라파좌낭-了知一切法) 일체법을 깨달게 되면
> 達嚩哆佉嚫(달예치구야-自性無所有) 자성이 무소유임을 알 것이다.
> 曩伽喞伽曩(낭가희가낭-如是解法性) 이같이 법성을 해석하면
> 達嚩盧舍那(달예노사나-卽見盧舍那) 즉시 노사나불을 볼 것이다.[4]

이 게송은 "大方廣佛華嚴經" 卷第十六中에서 十四 '須彌頂上偈讚品', 8

---

3) 東北方有菩薩住處。名淸涼山。過去諸菩薩常於中住。彼現有菩薩。名文殊師利。有一萬菩薩眷屬。常爲說法。

4) 『三國遺事』「臺山五萬眞身」
"按山中古傳, 此山之署名「眞聖住處」者, 始自<慈藏法師>. 初, 法師欲見中國<五臺山>文殊眞身, 以<善德王>代, <貞觀>十年丙申(《唐僧傳》云十二年, 今從《三國本史》)入<唐>, 初至中國<太和池>邊, 石文殊處, 虔祈七日, 忽夢大聖授四句偈, 覺而記憶, 然皆<梵語>, 罔然不解. 明旦忽有一僧, 將緋羅金點袈裟一領·佛鉢一具·佛頭骨一片, 到于師邊, 問:「何以無聊?」師答以夢所受四句偈, <梵音>不解爲辭, 僧譯之云:「呵囉婆佐曩, 是曰了知一切法; 達嚩哆佉嚫, 云自性無所有; 曩伽喞伽曩, 云如是解法性; 達嚩盧舍那, 云卽見盧舍那.」"

菩薩偈讚에 실려있다. 서방의 승혜보살 게찬은 '그때에 勝慧보살이 부처의 위력을 이어 시방을 두루 관하시고 게송을 읊어 설법하시되'로 시작된다. 첫 번째는 여래의 지혜와 두 번째는 범부의 미혹, 그리고 세 번째가 일체법을 요지함을 설하고 있다[5].

여기서 노사나불은 사전적 의미로는 報身 盧舍那佛을 말한다. 청정한 수행과 정진의 결과로 얻어지는 원만한 불신이다. 아미타불, 약사여래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화엄경에서는 비로자나불의 약칭이며 화엄종의 본존불을 의미한다.

사구게를 해석해준 스님은 금점가사 한 벌과 발우 한 개, 그리고 불두골 한 조각을 주면서 "이것은 본사 석가존의 도구이니 잘 간직하시오"라 했다. 다시 "당신의 나라 艮方(동북방) 명주 경계에 오대산이 있습니다. 일만의 문수가 거기에 상주하니 가서 뵙도록 하시지요" 라고 말한 후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자장이 귀국하려 할 때 태화지의 용이 현신하여 재를 청하고 칠일간 공양했다. 용은 "옛날에 사구게를 전해준 노승이 바로 문수였소" 라고 말했다[6]. 이러한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신라 오대산 신앙은 바로 문수보살의 능동적인 발원에 의해 그 바탕이 마련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문수보살은 화엄경에서 보현과 함께 비로자나불의 협시보살로 등장한다. 그러므로 문수보살과 연관지어 나타나는 노사나불은 바로 화엄본존 비로자나불이다[7].

---

5) 了知一切法이 自性無所有니
如是解法性하면 則見盧舍那로다
因前五蘊故로 後蘊相續起하나니
於此性了知하면 見佛難思議로다

6) 『三國遺事』「臺山五萬眞身」
"仍以所將袈裟等, 付而囑云:「此是本師釋迦尊之道具也. 汝善護持.」 又曰:「汝本國艮方<溟州>界有<五臺山>, 一萬文殊常住在彼, 汝往見之.」 言已不現. 遍尋靈迹, 將欲東還, <太和池>龍現身請齋, 供養七日. 乃告云:「昔之傳偈老僧, 是眞文殊也.」"

7) 전해주, 『화엄의 세계』(민족사, 1998), p.18.
"80화엄은 이렇게 시작된다. 一, 世主妙嚴品 1 一, 始成正覺 如是我聞하사오니

그런데 문수보살은 화엄본존 비로자나의 변화법신으로서의 문수를 지칭한다. 이를테면 지혜를 표상하는 문수의 이름으로 법신을 나투신 비로자나불이라 할 수 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진여원, 즉 오늘날의 상원사에서 문수대성이 매일 아침 인시에 36형으로 화현했다고 되어 있다[8]. 그 36형은 문수보살에게 기대되는 상징이라기보다는 바로 비로자나불 혹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부처에게서 기대될 수 있는 상징들이다. 그러므로 신라인들에게는 인도 태생이며 정거천에서 설법하시는 석가모니나 비로자나불의 모습이 아니라 그 권능을 나투어 신라인에게 영험을 보이신 변화법신으로서의 문수보살을 모시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라고 생각되었음직도 하다. 또한 그것이 자장의 의도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자장에 의해 시작되고 신라의 왕자인 보천과 효명에 의해 알려진 36화현 등의 영험은 국가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했던 확실한 근거를 제공했을 것이다.

一時에 佛이 在摩竭提國阿蘭若法菩提場中하사 始成正覺하시니라 《화엄경》에는 처음에 마가다국 붓다가야에서 정각을 이루신 석가모니부처님이 출현하신다. 그런데 이 석가모니부처님이 바로 비로자나부처님이시며, 비로자나는 노사나로도 번역되고 있다. 이러한 부처님을 삼불원융의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 한 것이다."

8) <眞如院>地, 文殊大聖每日寅朝化現三十六形(三十六形見)《臺山五萬眞身傳》에 나온 36형은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불형- 불면, 불안, 불수, 불족
건축-다리, 금루,
유형상징-보탑, 보주, 금륜, 금강저, 만등, 금보, 금세, 금전, 은전, 금고, 금종
무형상징-오색광명, 오색원광, 신통, 뇌전, 여래용출, 지신용출,
상징동물-금봉, 금오, 말이 사자새끼를 낳는 모습, 소가 사자새끼를 낳는 모습, 봉황, 백상, 까치, 사자, 돼지, 푸른 뱀
상징식물-길상초, 청연화
每日寅朝, 文殊大聖到<眞如院>·今<上院>, 變現三十六種形. 或時現佛面形, 或作寶珠形, 或作佛眼形, 或作佛手形, 或作寶塔形, 或萬佛頭形, 或作萬燈形, 或作金橋形, 或作金鼓形, 或作金鐘形, 或作神通形, 或作金欄形, 或作金輪形, 或作金剛杵形, 或作金甕形, 或作金鎚形, 或五色光明形, 或五色圓光形, 或吉祥草形, 或靑蓮花形, 或作金田形, 或作銀田形, 或作佛足形, 或作雷電形, 或(如)來湧出形, 或地神湧出形, 或作金鳳形, 或作金烏形, 或馬産師子形, 或雞産鳳形, 或作靑龍形, 或作白象形, 或作鵲鳥形, 或牛産師子形, 或作遊猪形, 或作靑蛇形. 二公每汲洞中水, 煎茶獻供, 至夜各庵修道.

진여원에 대한 성덕왕의 배려는 특히 화엄사의 특혜로 나타난다. 보천과 효명왕자가 중대에 진여원을 개창하자 왕이 친히 백관을 거느리고 오대산에 왕림했다. 전당을 짓고 니상문수대성을 모셨다. 靈卞 등 다섯 사람의 知識을 써서 화엄경을 오래 돌려 읽게 했다. 그리고,

> "왕이 화엄사를 조직하고 오랫동안의 비용을 대었는데 매년 봄과 가을에 이 산에서 가까운 州縣으로부터 倉租 일백석과 淨油 1석씩을 바치게 하는 것으로 상규를 삼았다. 또 진여원으로부터 서쪽 6천보를 가서 牟尼岾과 古伊縣 밖에 이르는 시지 15결과 율지 5결과 좌위 2결을 주어 처음으로 莊舍를 설치하였다[9]"

고 했다. 이 때 중대 진여원의 화엄사는 동 관음사, 남 금강사, 서 수정사, 북 백련사의 구심점이었으니 화엄의 비중을 알만하다 할 것이다.

2. 관음지장신앙

보천과 효명이 하루는 오봉에 참례했더니 각 대마다 부처님들이 나타났다고 했다. 즉 동대 만월산에는 관음보살, 남대 기린산에는 지장보살, 서대 장령산에는 무량수불과 대세지보살, 북대 상왕산에는 석가여래와 오백아라한, 그리고 중대 풍로산에는 비로자나불과 문수보살이 나타났다는 것이다[10]. 요약하면 중 비로자나, 동 관음, 남 지장, 서 미타, 북

---

9) 『三國遺事』「臺山五萬眞身」

"<聖德王>卽位四年也)乙巳三月初四日始改創<眞如院>, 大王親率百寮到山, 營搆殿堂, 竝塑泥像文殊大聖安于堂中, 以知識<靈卞>等五員, 長轉《華嚴經》, 仍結爲<華嚴社>, 長年供贊, 每歲春秋, 各給近山州縣倉租一百石·淨油一石, 以爲恒規. 自院西行六千步, 至<牟尼岾>·<古伊峴>外, 柴地十五結, 栗枝六結, 坐位二結, 創置莊舍焉."

10) 『三國遺事』「臺山五萬眞身」

"一日同上<五峯>瞻禮次, 東臺<滿月山>, 有一萬觀音眞身現在, 南臺<麒麟山>, 八大菩薩爲首一萬地藏, 西臺<長嶺山>, 無量壽如來爲首一萬大勢至, 北臺<象王山>, 釋迦如來爲首五百大阿羅漢, 中臺<風盧山>亦名<地盧山>, 毗盧遮那爲首一萬文殊.

석가의 구도가 된다. 이를테면 오방불이지만 오방에 배대되는 부처는 신라인 특유의 것이다. 즉 중국이나 일본, 혹은 인도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관음과 지장은 신라의 토착적인 신앙이라고도 할 만큼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먼저 관음보살은 웅신이 자재롭다. 현교와 밀교를 가리지 않는다.

현교에서 보면 먼저 화엄경에서 보타락가산 달빛 바다 위의 연꽃 보좌 위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법화경에는 33웅신에 따라 수월관음, 양류관음이 나온다. 능엄경에도 32웅신이 나온다. 밀교에서는 청관세음보살소복독해다라니주경, 불설십일면관세음신주경, 마하대명주경 등이 대표적인 관음경이다. 밀교에서 웅신하는 관음보살로는 천수천안, 마두, 십일면, 준제, 불공견삭, 여의륜 관음을 들 수 있다. 이를테면 현교에서의 관음보살이 밀교로 편입되면서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운신은 세간적 실지, 즉 중생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갖추고 있다.

중국에서의 관음사상이 밀교에 전입된 것은 당 개원 연간의 일이다. 즉 선무외가 개원 4년, 714년에 천수천안관음법을, 개원 8년 720년에 금강지가 관음관행작법을 도입했던 것이다. 그런데 보천이 오대산신앙을 조직화한 것이 740년대 이후의 일이라고 보면, 당시 당에서 직수입되던 중국밀교의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신라인의 신앙형태를 개관하면 이미 형성된 관음사상에 밀교적인 가피력이 덧붙여진 형태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먼저 관음신앙은 신라인에게 절대적이었다[11]. 자장은 관세음보살에

如是五萬億身一一瞻禮."

11) 삼국유사에는 관음웅신이 풍성하게 다뤄진다. 경주 남항사의 십일면관음화상이 비구니의 몸으로 나타나 경흥의 병을 고쳐 주었다. 백률사의 대비관음상은 사문의 몸으로 나타나 이국 땅에 잡혀간 화랑인 부례랑과 안상을 구해 왔으며 민장사의 관음상은 승려로 나타나 장춘을 오나라 땅으로부터 데려 왔다. 낙산사의 관음은 속세의 여인을 사모하는 조신의 미망을 깨우쳐 주었다. 중생사의 대비관음상은 아들을 낳게 해주고 난리 통에 젖을 먹여 길러 주었다.

예배공양한 공덕으로 탄생한다[12]. 정통화엄을 표방하는 의상이 관음응신에 따라 낙산에 세운 것이 관음도량이었다[13]. 김대성은 불국사 창건 당시부터 관음전을 세운 바 있다[14]. 관음응신은 금강산에도 숱한 일화, 전설을 남기고 있다[15]

관음사상과 아울러 개원 4년 선무외에 의해 지장법 또는 지장화상법으로 밀교에 전입된 지장사상[16] 역시 충분한 영험담이 있다. 삼국시대에 이미 지장신앙이 보고될만큼 우리 나라의 지장신앙은 그 뿌리가 깊다. 지장경이 중국계 대방광십륜경이 번역된 북량(397-439) 즉 고구려 광개토왕 7년(백제 아신왕 6년)에서 장수왕 27년(백제 비유왕13년)사이에 번역되었고, 占察經은 隋代(581-617)에 번역되었으므로 지장사상이 삼국시대에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17]. 그리하여 지장사상은 진평왕대의 원광 이래로 행해졌던 占察敎法, 신라의

나아가 관음보살은 응신하여 수행하거나 성불을 도와주기도 한다. 광덕이 먼저 성불한 후 관음화신인 광덕의 처는 엄장을 일깨워 원효의 수관을 배워 성불하게 한다. 월악산의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은 화신 관음의 영험으로 성도한다.

12) 『三國遺事』「慈藏定律條」
"大德<慈藏>, <金>氏, 本<辰韓>眞骨蘇判(三級爵名)<茂林>之子. 其父歷官淸要, 絶無後胤, 乃歸心三寶, 造于千部觀音, 希生一息, 祝曰:「若生男子, 捨作法海津梁.」母忽夢星墜入懷, 因有娠, 及誕, 與釋尊同日. 名<善宗郎>."

13) 『三國遺事』「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條」
"東海龍亦獻如意寶珠一顆. 師捧出, 更齋七日, 乃見眞容, 謂曰:「於座上山頂雙竹湧生, 當其地作殿宜矣.」師聞之出崛, 果有竹從地湧出. 乃作金堂, 塑像而安之, 圓容麗質, 儼若天生; 其竹遯沒, 方知正是眞身住也, 因名其寺曰<洛山>."

14) 姜裕文, 『佛國寺古今創記』(慶北佛敎協會, 昭和12年=1938), p.1.

15) 삼국유사 뿐 아니라 신라인의 관음 응신영험을 잘 보여주는 곳이 있다. 바로 금강산이다. 금강산의 전설에 등장하는 보덕은 관음보살의 다른 이름이다. 세상에 나타날 때는 보덕각시로 응신한다. 회정선사가 꿈에 만난 처녀에게 사랑을 간청했다가 생시에 만폭동에서 만났다. 뒤따라 갔다가 관음화신의 수도도량인 보덕굴을 발견, 수도에 정진했다는 이야기가 그 하나이다. 두 번째는 회정선사가 관음진신 친견 천일기도를 드리다가 법기보살 혹은 관음보살의 현몽에 따라 몰골응이라는 문수보살, 해명방이라는 보현보살, 보덕이라는 관음보살의 가피를 입는다는 이야기다.

16) 徐閏吉, 『韓國密敎思想史硏究』(佛光出版社, 1994), p.99.

17) 김영태, 『삼국시대불교신앙연구』(불광출판사, 1997), p.262.

진표율사와 원광법사 등이 행한 점찰법회, 점찰보 기록 등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

지장신앙은 지옥에 떨어지지 말게 해달라는 기원을 담고 있다. 반어적으로 말하자면 극락왕생사상이다. 극락왕생사상을 담고 있는 甘露幀畵에 지장보살이 등장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이다. 감로탱화는 우란분경 변상도의 하나이다. 우란분경과 목련경의 사상이 극락왕생사상과 결합된 형태이다. 감로란 의지할 곳 없이 떠도는 영혼에게 감로와 같은 법문을 베풀어 해탈시킨다는 뜻에서 붙여진 말이다.

백성에게 지장사상은 극락왕생사상이 증폭된 신앙으로 나타난다. 감로탱화는 보통 삼단으로 구성된다. 상단에는 정토 7여래인 아미타삼존, 지장보살과 인로왕이 그려진다. 중단에는 천도재 올리는 모습과 공양구를 배경으로 아귀와 귀왕이 위세를 뽐낸다. 하단에는 육도중생이 지장보살의 제도를 기다리고 있다. 아미타여래가 극락신앙의 표상이라면 지장보살은 지옥의 표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극락과 지옥이 동시에 그려지는 것이 감로탱화이다.

고려시대에는 지옥고에서의 구제를 위한 지장신앙과 아울러 극락정토 왕생을 위한 아미타신앙이 융성했다. 이렇게 지장보살과 아미타불이 함께 그려지는 것은 백성에게 지옥에 떨어지지 말게 해달라는 기원과 극락왕생의 기원이 같은 것으로 수용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원이 강렬한만큼 지장사상은 일찍부터 백성들의 의식 깊숙히 자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관음과 지장이 포함된 오방불사상의 원형은 오불의 성격상 태장계 오불보다는 금강계 오불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금강계 만라라에서는 불공성취불을 석가와 동체로 보고, 보생불이 사권속 중에서 금강당 보살로 변한 것으로 보아 보생불이 바로 지장보살의 변화신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런 배경에서 금강오불에서 아촉불이 관음보살로 나타날 수 있었다[18].

도표에 나타난 대일여래는 비로자나불과 같은 불격이다. 그리고 금강계 오불의 불공성취불은 석가불의 밀교적 명칭이다.

<도표>

방위	금 강 5불	원어	오대산 상주오불	원어	태장5불	원어
중	대일여래	MahaVairocana	비로자나불	Vairocana	대일여래	MahaVairocana
동	아촉불	Aksobbhya	관음진신	Avalokitesvara	보당여래	Ratnaketu
남	보생여래	Ratnasambhava	지장보살	Kzssitigarbha	개부화왕여래	Samkusumita-raja
서	아미타불	Amitabha	아미타불	Amitabha	무량수여래	Amitabha
북	불공성취	Amoghasiddhi	석가모니불	Sakyamuni	천고뢰음	Divyadundubhim =eghanirghosa

그런데 금강계 오불의 보생불이 신라에서 지장보살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보생불과 지장불의 성격이 같기 때문일 것이다. 즉 보생불이란 일체의 재물과 보배를 만들어내는 보살이다. 밀교에서는 허공장보살이나 지장보살이 넓은 의미에서 재보를 산출하는 보살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굳이 신라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지장신앙을 보생불신앙을 바꿀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촉불이 관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촉불의 성격이 정토신앙이므로 서방주불 아미타불과 혼동되거나[19] 관음영험담에서 살필 수 있듯이 신라인들이 관음보살에 보다 호의적이기 때문일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사상적 배경에서이건 신라에서 보생불과 아촉불은 인기가 없었다. 이를테면 최남선본 삼국유사에서 검색해보면 지장이 14회, 관음이

18) 홍윤식, 『한국불교의 밀교적 특색』(만다라사, 1995), p.50.

19) 아촉불은 대목보살이 설법할 때 화내지 않고, 음욕을 끊고 정진하겠다고 선언한 후 오랜 세월 수행하여 부처가 된 후 동방의 묘희국에 주한다는 부처이다. 지루가참 역의 『아촉불국경』에 의하면 아촉불은 아미타불과 함께 이 세상에 처음 나타난 부처로 되어 있다. 그리고 『아촉불국경』은 한역경전 중에서 정토사상을 설한 최초의 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18회가 나오는 반면 보생불과 아촉불은 한 번도 거론되지 않는다. 삼국유사가 발간된 것은 고려 제 25대 충렬왕 때인 13, 14세기였다.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이 비교적 밀교와 주술적인 불교에 관대하였으므로 금강오불사상에 의한 밀교적인 아촉불, 보생불 신앙이 신라에 성행했더라면 충분히 반영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라인의 머리 속에 자리잡은 어떤 신앙체계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화엄과 선의 회통에 의해 형성된 산천 만다라이다[20].

Ⅲ. 산천만다라

오대산의 오불사상에서 나온 오색은 전통적인 오방색과 유사한 개념을 보여준다. 도표를 보면 오대산의 오색은 중국과 한국에서 통용되는 오방색과 같다. 다만 전통적인 중앙의 황색이 오대산에서는 녹색으로 바뀌고 있을 따름이다. 다시 말해서 오색의 경우는 금강계의 오불보다 전통적인 오방사상이 가깝다는 것이다. 이것은 금강오불의 구도에서 관음과 지장사상이 아촉불과 보생불을 수용할 수 없었듯이 신라인의 전통적인 신앙체계를 금강계 밀교의 체계가 밀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습합된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도표내의 같음표(=)는 금강오불과 불격이 같음을 나타낸다. 화살표(->)는 금강오불이 신라에서 습합된 경우를 가리킨다.

---

20) 만다라 혹은 만달라(Mandala: 曼陀羅, 滿茶羅)는 壇, 壇場, 圓滿具足 혹은 輪圓具足을 번역한 말이다. 단이나 단장은 평지가람을 조성하여 불보살을 모시고 예배하던 곳이라는 뜻이므로 가람만다라, 산천만다라의 뜻이 될 것이다. 또 윤원구족이란 수레의 바퀴살이 모여 바퀴가 되듯이 모든 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 함이니 화엄만다라가 그 뜻에 해당될 것이다. 밀교에서는 聚集의 뜻으로 쓴다. 제불보살과 성중이 모인다는 뜻이다.

방위	금강5불	원어	오대산오불	양계만다라오색	오대화엄오색	中 韓 전통오색
중	대일여래	MahaVairocana	=비로자나불	백	녹	황
동	아촉불	Aksobbhya	->관음진신	청	청	청
남	보생여래	Ratnasambhava	->지장보살	황	적	적
서	아미타불	Amitabha	=아미타불	적	백	백
북	불공성취	Amoghasiddhi	=석가모니불	녹	흑	흑

동양에서 오방사상의 기원은 오악사상이다. 순임금이 오악에 제사를 지냈다 했으니 그 유래가 깊다. 한국에서도 오악이 있고 전통적으로 산악숭배사상이 있었다. 그러므로 오대산 신앙이 오방사상을 표방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오대산을 진성이 거주하는 불단으로 생각한다는 이른바 산천만다라 사상은 인도의 만다라와 얀뜨라 등의 영향이다. 인도적인 우주관이 만다라라는 장소성과 신화화한 의식이라는 틀을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만다라의 체계가 전통적인 택지법, 성수신앙, 도참, 음양사상을 포섭하게 되는 것은 선무외 문하에서 밀교를 공부한 당나라의 일행(673-727)에 의한 것이다[21].

그것이 이 땅에 들어와서 전래의 토속신앙과 함께 蘇塗, 즉 신성한 금기지역 사상 및 삼산오악사상을 융섭하고 도선의 비보사탑설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 이른바 산천만다라사상이다. 이 과정에서 화엄과 선이 회통한다.

선은 신라가 바로 불국토라는 사상을 확대하여 전국토의 만다라화를 시도한다. 불국토 사상이라면 먼저 불국사가 불국토를 구현하기 위해 창건되었다는 사실을 연상케 된다. 또 가섭불 연좌석이나 장육존상 및 굴불사 미륵은 신라 땅에서 불적이 있었다는 증거로 여겨졌다.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은 신라 땅에서 현신성불했다. 화랑은 미륵선화였다. 즉 신라라는 나라 자체가 불국정토였다는 것이다.

---

21) 徐閏吉, 『韓國密敎思想史硏究』(佛光出版社, 1994), p.26.

신라인들은 산과 계곡과 바위에 불사, 불탑, 마애불을 모셨다. 비보사탑설에 따라 사찰을 건립했다. 나아가서는 산과 봉우리에 불보살의 명호를 붙였다. 밀교적인 개념을 보여주는 기도처를 마련했다. 그 중에서도 금강산은 불국토사상을 잘 보여주는 극명한 예가 된다. 산봉우리 이름은 화엄이되 산악을 부처로 생각하는 것은 다분히 禪的인 것이다.

먼저 금강산이라는 이름이 화엄에서 나왔다. 화엄경에 묘사된 금강은 부처를 모신 불당의 화려함을 비유한 말이었다.

금강산이 화엄성지로 생각된 것은 787년 징관[22]의 80화엄 주석서인 華嚴經疏에서 비롯한다. 징관은 동해에 가까운 동쪽에 금강이란 산이 있다고 했다. 위 아래와 사방의 산 사이에 흐르는 물과 모래 중에 금이 있어 멀리서 바라보면 전체가 금으로 보이는 산이 금강산이라 했던 것이다.

금강산 일만이천봉은 실제 절반에 못미치는 오천봉이라 한다. 그 많은 봉우리 중에서 이름을 가진 봉우리가 몇백은 된다. 이들 이름은 전래신앙, 도교, 밀교 등 다양하다. 그러나 역시 금강산 명칭들의 큰 뼈대는 불교적이며 또한 화엄적인 것이다[23].

---

22) 전해주, 『화엄의 세계』(민족사, 1998), pp.145-147.
"중국 화엄종조로는 전통적으로 법순두순(法順杜順, 557~640)→ 지상지엄(至相智儼, 602~668) → 현수법장(賢首法藏, 643~712) → 청량징관(淸凉澄觀, 738~839) → 규봉종밀(圭峰宗密, 780~841)로 이어지는 화엄오조설이 있다. 그 외 마명-용수를 앞에 두어 7조, 세친, 문수, 보현을 합해 10조설도 있다."

23) 금강산의 이름을 분류해 보면 생긴 형상에서 오는 것이 많다. 마면봉, 백마봉, 우두봉, 쌍치봉, 구봉 등이다. 전설이 깃든 이름도 많다. 만물초, 배석대, 망군대, 사자암, 혈망봉, 영랑봉, 영원동 등이 그러하다. 그리고 종교나 신앙이 깃든 이름들이 있다.
먼저 전래신앙 또는 무속적인 이름이 있다. 일출봉, 월출봉, 천주봉, 천신암 등이 그러하다.
도교적인 것이 있다. 집선봉, 옥녀봉은 봉우리 이름, 삼선암, 육선암, 구선암은 바위 이름, 군선동, 영선동은 골짜기 이름, 강선대, 신선대, 천선대, 독선대는 전망대 혹은 높은 바위이다. 선인굴은 굴이름, 욕선지는 못 이름이다.
그 중에서도 불교적인 이름들은 봉, 암, 동, 굴, 폭포, 절에 고루 스며 있다. 석가봉, 법기봉, 관음봉, 극락봉, 시왕봉, 미륵봉, 세존봉, 수미봉, 성불봉, 법륜봉 등

금강산의 주봉은 비로봉이다. 화엄주불 비로자나불에서 따온 이름이다. 그리고 금강산의 봉우리들에 붙여진 이름이 오대산의 가람 만다라와 같다는 사실에서 다시 한번 신라 화엄의 위력을 실감케 한다.

금강산의 최고봉은 1638m의 비로봉이다. 그 다음 높은 것이 동쪽의 관음봉이다. 세 번째로 높은 것이 남쪽의 지장봉이다. 그리고 북쪽의 오봉산 중에 석가봉이 있다. 중앙의 비로봉을 중심으로 동 관음, 남 지장, 북 석가의 오대산 가람만다라와 같지 아니한가.

다만 오대산과 같지 않은 점이 있다면 서쪽에 미타에 준하는 봉우리가 없다. 이를테면 아미타, 극락, 정토, 수정 등의 산, 봉, 사찰, 암자, 굴 등의 지명이 있음직도 하다. 이유가 뭘까. 혹시 금강산을 위시한 신라땅이 바로 청정불국토이니 따로 서방정토나 아미타, 미타 등 지명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생각이었을지도 모른다.

금강산의 이러한 봉우리 이름들의 만다라적인 배치는 보천스님에 의해 8세기 초에 성립되었다고 보는 오대산 신앙과 신라의 가람배치의 원형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금강산에 사암이 들어선 것은 남해왕 4년에 세워졌다는 유점사의 전설이 처음이지만 실제로 신계사, 건봉사, 장안사, 정양사, 표훈사 등 대부분의 대찰들이 신라시대에 창건되었다. 그리고 6세기에는 금강산유람이 유행했었지만 금강산이 불교의 성지로 생각된 것이 7세기 말이었다. 선종의 발달로 심산유곡에 절을 짓는 거국적인 풍조에 따라 신계사, 장안사, 표훈사 등이 선종과 결합하여 선승들의 수도처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선승들의 왕래가 잦아지면서 오대산의 가람만다라 체계를 본딴 산천만다라가 형성될 수 있었을 것이다[24].

온 봉우리 이름이다. 삼불암, 달마암, 불암, 사천왕암, 불장암, 문수암은 바위 이름이다. 천불동은 골 이름, 보덕굴은 굴이름, 열반폭, 금강폭은 폭포이름, 마하연은 절 이름이다. 그리고 묘길상, 삼불암 등은 마애불의 이름이다.

24)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금강산에 깔려 있는 삼국유사와 닮은 꼴의 설화들이다.
이를테면 유점사의 53불 연기설화가 있다. 53불은 인도에서 조성된 후에 서역을 거쳐 신라로 들어왔다. 금강산의 아홉 용을 물리치고 유점사에 자리잡았다는 영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한국불교의 만다라 사상은 도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백성의 삶의 현장과 의식 속에 깊숙히 자리잡고 있는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백성이 삶의 현장과 의식을 내어주면서까지 매달렸던 산천만다라의 정체가 무엇일까.

1. 소재기복도량

보천스님의 유언을 되새겨보자. "이 화장사로 하여금 동남서북중의 다섯 방위에 본사를 삼아 굳게 호지하고 정행복전에게 명하여 길이 향화를 받들게 하면 국왕이 장수하고 백성이 안태하고 문무가 화평하고 백곡이 풍요할 것이다."라고 했다[25].

보천의 이러한 불사에 대한 관념과 믿음은 주술적, 기복적 영험신앙의 형태로 발견된다. 이를테면 삼국유사에 수록된 바, 선덕여왕과 승상 김양도의 병을 고쳐준 밀본, 당 고종의 공주가 걸린 병을 고쳐주고 원귀가 된 병귀를 교화한 혜통 등의 사례는 신라밀교의 소재기복적인 면을 잘 말해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후 고려는 물론이고 억불치하의 조선왕조에서도 태조 7년의 오대산 상원사 법석, 태종 1년의

험 많은 불상이다. 그 53불의 설화는 황용사 장육존상 설화와 같다. 배를 통한 해양전래 경로, 인연있는 곳에 조성하라는 공문이 담은 꿀이다. 또 53불의 행선을 스님들이 알려줬다는 이야기는 요동성 육왕탑조의 이야기와 같다.
박빈거사는 금강산에서 수도한 후 용선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 그때 내려왔다는 용선은 하늘에서 강림했다는 유사의 사불산 사방여래 설화와 비슷하다. 세조가 왕림한다 하기에 노스님이 약사불을 돌려 놓았더니 세조에게 법기보살의 광명으로 나투었더라는 금강산 정양사 돌부처 이야기는 유사의 굴불사 사방불 설화의 변형이라 할 수 있다. 또 정양사 약사전의 16세 소년목수가 사라라 용왕의 아들이었다는 용왕설화는 의상에게 여의보주를 바쳤다는 유사에서의 용신고사와 비슷하다.

25) 『三國遺事』「臺山五萬眞身」
"以此<華藏寺>爲<五臺社>之本寺, 堅固護持, 命淨行福田, 鎭長香火, 則國王千秋, 人民安泰, 文虎和平, 百穀豊穰矣."

상원사 사자암 중건, 태종 14년의 상원사 수륙재 등을 비롯한 숱한 소재도량이 베풀어졌던 것이다. 오대산과 역대 왕실과의 관계, 그 중에서도 조선 세조의 봉불은 가이 전설적이다.

오대산에 대한 세조의 집착은 불법의 홍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속죄와 참회를 위한 소재도량으로서의 많은 이야기꺼리를 남기고 있다. 세조와 문수동자의 인연담은 생각하기에 따라 오대산이 바로 청정불국토요, 보천이 말한대로 국왕이 장수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 그러나 세조가 바란 것은 문수신앙이라는 화엄의 정신에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밀교의 주술적 효능이었다는 점을 알게 된다. 먼저 세조의 병을 고쳐 주었다는 문수동자의 설화[26]는 허구일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세조는 몹쓸 병이 기적적으로 낫자 화공에게 몇번이나 고쳐 동자의 화상을 그리라 했다. 그 화상은 없어지고 화상을 본따 깎아 만들었다는 목각 문수동자상이 남아 있다. 그런데 그 목각 문수동자가 '강원도 촌놈'의 모습이 아니라 중국풍의 아이 모습을 한 보살상이었다. 즉 중국 그림을 본따 이 나라에서도 많이 그려졌던 민화의 곽분양향락도나 백동자도, 또는 신선도 등에서 볼 수 있는 雙紒를 했으며 나아가 불화나 불상에서 볼 수 있는 보살의 의습 및 치장을 했다. 특히 쌍 상투라 할 수 있는 쌍계는 중국에서 관례 이전에 아이들이 했지만 조선에서는 궁중에서 한 일이 있다는 기록 뿐 대중화되지는 않았다. 조선시대의 문인화나 풍속화에서 찾아보면 조선의 아이들, 특히 평민의 자제들은 풀어헤친

26) 전하는 바에 의하면 몹쓸 피부병으로 고통을 받던 세조가 오대산에서 목욕을 했다. 삼엄한 경계를 뚫고 지나가는 동자에게 등을 밀어 달라고 했다. 당연히 강원도 산골 아이였으니까 세조가 농담삼아 임금의 옥체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동자는 진신문수를 보았다는 말을 하지 마시라 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세조의 병이 낳았다. 세조는 그것을 문수동자의 감응이라 감격했다는 이야기다.

머리거나, 고려말 원나라의 영향으로 굳어진 編髮, 즉 땋은 머리였다[27]. 그렇다면 세조가 만났다는 문수동자의 정체가 의심스럽게 된다.

이러한 전설의 허구성은 오대산 문수신앙을 통해 세조 자신이 불보살의 가피에 의해 속죄받았음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한 방편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 하나, 상원사 법당에 숨어있던 자객을 찾아내어 암살을 모면하게 해 준 고양이 이야기가 있다. 세조는 그 고양이를 기를 경비조달을 위해 묘전, 즉 고양이 밭을 제공하고 있다. 즉, 떠도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후세에 부동의 증거를 남긴 셈이다. 그것은 세조 자신이 천명을 이어받은 정통군주거나 혹은 신라 왕실불교의 맥을 이어 받았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의 가호를 받는 전륜성왕처럼 인식되기를 원하여 퍼트린 이야기일 수 있다. 이러한 허구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세조의 치병이 문수사리법보장다라니경에 수록된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밀교와 결합된 문수신앙은 다분히 소재기복적이다. 경에 의하면 세존이 금강밀적에게 일러준 문수동자는 신통변화가 자재 장엄하고 널리 일체중생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말세에 불법이 멸하고 악법이 증장할 때 오행이 무질서해지고 음양이 교차할 때, 기상이변이나 천체의 변괴 등 모든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악귀는 여자처럼 꾸미고 중생에게 모든 병을 준다. 그것이 무슨 병이냐 하면 喉閉疔瘡疥癩腹痛이다 목잠김, 악성종기, 부스럼, 옴, 문둥병, 복통 등등의 온갖 몸쓸 병에 걸려 의사가 소용이 없을 때 일주야 팔관재개를 하고 다라니를 외면 낳는다고 했던 것이다[28].

결과적으로 세조의 오대산 신앙은 몹쓸 병의 치료라는 세간적 실지를 위한 밀교적 영험이 목표였다는 이야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신라의 왕자에서부터 조선의 왕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왕공귀족과 백성을 사로잡

27) 金素希, 『童子雙紒考』(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88), p.3.
28) 『佛說文殊師利法寶藏陀羅尼經』(『大正藏』 20, p.791.)

은 불교의 흡인력은 바로 이러한 대중요법적인 영험이었다. 그러한 영험을 성취하기 위해 소재기복도량은 신성한 장소에서 청정한 고승에 의해 엄숙하게 거행되는 만다라적 제단이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것은 밀교적 신밀인 수인, 구밀인 구송, 의밀인 관심의 수행으로 정착되었다. 교종계의 교학승이라도 만다라 도형과 신주를 배우지 않으면 집전할 수 없었던 신성한 의식의 관념은 법당으로, 가람으로, 산천으로 벋어 나갔던 것이니, 그것이 상원사의 청정만다라, 오대산의 가람만다라, 금강산의 산천만다라의 형식으로 이 땅의 백성을 사로잡았던 신라 화엄밀교의 영험이었다.

2. 호국불국토도량

오대산의 신앙결사는 화엄밀교의 바탕에서 국가와 왕실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현실적 이익, 즉 국태민안과 국왕의 장수, 풍년 등의 현실적 이익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을 고취시킨 주체인 보천과 효명은 신라의 왕자이다. 이를테면 오대산 신앙은 신라불교와 왕실불교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배경이 있기에 훗날 오대산 사상의 구심점인 상원사가 조선초의 태조 태종의 귀의를 거쳐 세조의 전략적인 보살핌과 정통성창출의 수단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사실 호국불교 또는 호국밀교는 이 나라 불교의 큰 흐름이었다. 문무왕 10년(676년) 당나라 장수 설나의 오십만 원정군을 정주 해상에서 격침하고 이듬해 조헌 장군의 오만 군사를 물리친 것은 명랑의 신인, 즉 문두루비법(Mudra)이었다. 문두루비법이란 동진의 帛尸梨密多羅가 번역한 大灌頂神呪經 제7경인 佛說灌頂伏魔封印大神呪經에 의한 밀교 주술적인 것이다[29].

그런데 신라에서 밀교의 경전인 旃檀香火星光妙女經이 번역된 것이 606년이고 명랑의 문두루비법을 거쳐 명효가 8세기에 중국으로부터 중기밀교에 해당되는 대일경 주심품 및 금강정경의 오부사상에 근거한 不空羂索陀羅尼經을 번역하여 들어왔다고 보면[30] 화엄 밀교의 바탕이 마련된 오대산에 이러한 밀교적 경향이 滲入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명랑의 문두루비법은 연대로 보아 대일경과 금강정경에 의한 순밀계통이라기보다는 잡밀계통의 호국불교였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순밀계 밀교는 실재와 현상을 이 몸에서 통찰하고 구현함으로써 즉신성불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 잡밀 계통의 밀교는 주술과 제의 등의 극단적인 신비주의화를 통하여 현실적 욕망 만족의 수단으로 쓴다는 이른바 세간적 실지가 보다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오대산 사상의 뿌리가 되는 화엄밀교와 순밀 사이에 호국불교가 왕실불교의 비호 아래 굳건히 자리잡았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석굴암 불상이 김대성의 전세부모인 태종무열왕계의 왕족, 즉 신라의 왕족과 국체를 위해 창건되었다는 사실은 왕실불교의 호국성향을 잘 드러내 주는 예가 될 것이다. 왕실주도의 이러한 호국불사는 고려로 이어진다. 호국불교의 성격은 13세기 중엽에 몽고와의 항전 중에 조성된 고려대장경에 수록된 상당량의 밀교경전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리고 국운이 기울때마다 베풀어지는 만다라작법 등이 호국밀교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

---

29) 徐閏吉, 『韓國密敎思想史硏究』(佛光出版社, 1994), p.13.

30) 「開元釋敎錄」 第 9(『大正藏』 25, p.566b).

"李無諂이란 바라문은 북인도 嵐波國 사람이다. 배운 바가 많고 총민하여 안팎으로 해통했다. 중국어와 범어를 거침없이 구사했다. 삼장 阿儞眞那와 菩提流志 등과 여러 경을 번역하였다. 천후대 聖曆3년(700=久視 元年) 庚子3월에 신라국의 승 明曉가 있어 멀리서 보고 당나라의 교화를 장차 旋途하려는 욕심으로 摠持文에 먼저 마음을 두었다. 마침내 은근히 이 경을 번역해 줄 것을 졸랐다.(有新羅國僧明曉 遠觀唐化將欲旋途 於摠持文先所有意 遂慇懃固請譯此眞言)"

신라가 패망한 후에도 치병이나 항마 뿐 아니라 호국을 위한 밀교적 주술성향은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졌다. 이를테면 거란과 몽고와의 항전기에는 인왕도량, 마리지천 도량, 공덕천도량, 신중도량, 사천왕도량, 문두루도량 등을 개설하고 오백나한재, 문수회 등 비밀작법을 베풀며 약사경을 강설하는 등 거국적인 불사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특히 풍수지리와 결합된 호국불교의 전통은 조선에서도 계승되고 있다. 조선초의 억불정책에 따른 사사혁거, 승록사 폐지, 승니 도성출입 등에도 불구하고 도선의 사탑비보사상은 한양천도와 사찰의 퇴출 및 구조조정에 심층적으로 도입되고 있었다. 유점사, 해인사 등 왕실의 원찰이거나 호국이라는 국가적 주력사상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찰은 오히려 퇴출된 말사나 사암의 전지 등을 부여받았던 것이다. 심지어 억불왕이라 할지라도 왕실의 내전에서 주도되는 불사는 묵인하는 경향이었다[31].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불교의 포용력과 부처의 가피력에 힘입고자 하는 기원이 담겨 있음을 알게된다. 즉 재난과 병을 피하고, 현재의 생활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 국체를 지키는 일, 호국이라는 이념을 현실화하는 방편으로서 불교 혹은 밀교라는 강력한 신앙의례를 봉송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호국불사를 주도한 것이 왕실이라고 볼 때 호국불국토 사상의 구심점이 오대산이고 표상적 산천만다라가 금강산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Ⅳ. 화엄만다라

한국은 일본이나 티벳처럼 밀교나 만다라가 성행한 나라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대일여래를 중심으로 하는 교의체계나 도상으로

31) 「세종 024 06/04/05(경술)」(『증보판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 제1집』, 서울시스템, 1997).

표현된 태장계, 금강계의 양계만다라가 성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일 따름이다. 즉 표면적으로 선불교를 표방하고 있는 한국에서 밀교교의는 이름 그대로 은밀한 교리 및 의례의 형식으로 전해진다. 또한 타력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정토신앙의 염불 및 다라니염송, 미륵신앙이 민중신앙으로 신봉된다. 그리고 현교와 밀교의 포용, 정토신앙과 밀교신앙의 융섭, 선사상과 밀교사상의 합통의 결과로서의 밀교의례가 남아 있는 것이다. 이들이 세간적 실지로서의 소재기복을 바라는 민간신앙과 호국불국토라는 실천적 이익을 바라는 왕실의 이해에 맞는 형태로 가공되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티벳 등의 밀교 만다라와 그 형식과 내용, 정신과 사상이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의 불교는 또한 억불왕조인 조선을 지나면서 산중불교의 조심스런 의례로 유전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억불치하라 하더라도 전적의 간행이나 종파마다의 의식은 종단 폐합 이후에 더욱 많이 행해졌다. 그리하여 양계만다라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칠대만법과 같은 뛰어난 법체관을 성립시키기도 했다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칠대만법은 중국의 아자체대나 일본의 육대체대설과 다를 뿐 아니라 신라나 고려의 밀교사상에서 찾을 수 없는 조선 특유의 것으로 평가된다[32].

이러한 발견과 발굴은 한국불교에서 밀교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기존의 인식을 전환시킨 획기적인 사건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가 일본이나 티벳의 만다라라는 잣대를 벗어나면 생각하기에 따라 신라시대에 이미 한국적인 만다라의 원형이 도상의 형태로 검증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가람만다라, 산천만다라에 이어 화엄만다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32) 徐閏吉, 『韓國密敎思想史硏究』(佛光出版社, 1994), p.422.

1. 일승법계

오대산의 지도를 보면 적멸보궁은 호령봉 상왕봉 두로봉 중대산이 마치 다섯 손가락을 오므려 세운 듯한 가운데 놓여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오대산 적멸보궁이라면 호령봉과 상왕봉의 중간 쯤에 위치한 오대산 정상의 비로봉에 적멸보궁을 세우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다섯 산이 에워싼 한 가운데를 선택한 것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가야산 해인사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해인사와 가야산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33], 해인사를 중심점으로 가야산까지의 동심원을 작도했을 때 주요 산봉우리인 두리봉, 단지봉, 남산제일봉이 동심원상에 위치한다. 그리고 깃대봉은 동심원보다 약간 안쪽으로, 가산은 약간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볼때 마치 손가락 다섯을 자연스레 오므린 한 가운데 해인사가 놓인 듯하다.

해인사와 오대산 적멸보궁의 이러한 입지적인 공통점은 두 사찰이 공유하는 창건이념과 사상이 같음을 암시한다. 사찰의 창건은 경전의 개념과 당시 불교의 이념과 철학 및 대중들의 신앙의 방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오대산 사암과 해인사의 창건이념은 화엄에 근거한다. 오대산의 상원사, 즉 보천 효명에 의해 705년(성덕왕 4년)에 창건되었던 진여원에는 화엄의 문수신앙이 바탕이 되어 있다. 해인사는 802년(애장왕 3년)에 順應이 개산하여 利貞이 준공했다. 순응은 화엄경의 철학과 사상의 집결체로 믿어지는 해인삼매를 천명하고자 해인사를 세웠다. 정대불사는 영인본 대장경을 이고 마당에 그려진 해인도의 굴곡을 따라 행진하는

33) 백난영, 『가야산 해인사의 입지성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석사논문, 1993), pp.35-47.

의례로써 의상의 화엄종풍이 오늘에 전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산 증거라 할 수 있다[34].

해인도는 화엄일승법계도의 별명이며 의상의 화엄사상이 집약되어 있다. 화엄의 요체인 육상의에 대한 의상의 원융사상이 독특한 비유와 해석이 담겨있다. 육상의는 總相·別相·同相·異相·成相·壞相을 말한다. 육상원융은 법계도에서는 一卽多 多卽一의 세계로 비유된다. 하나가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일 수 있는 세계, 세계 속에 모든 티끌이 들어 있지만 그 하나의 티끌에도 세계가 포함될 수 있는 원융의 세계가 화엄의 법계라는 말이다[35].

여기서 하나란 가운데 있는 이를테면 중심을 말하고 많은 것이란 바깥에 있는 여럿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다. 즉 해인사가 하나라면 해인사를 둘러싼 산봉우리들이 여럿이 된다. 또 적멸보궁이 하나라면 적멸보궁을 둘러싼 동남서북의 사암과 봉우리들이 여럿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강산에서도 비로봉을 중심으로 많은 불보살 명호를 가진 산과 봉우리가 있지만 특히 오대산은 중심과 주변에 심장한 체계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즉 오방불 사상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 사상적 배경이 화엄이다.

보천은 유언을 통해서 특히 중대 진여원의 성격을 화엄으로 특징지우고 있다.

---

34) 전해주, 『화엄의 세계』(민족사, 1998), p.202.
"《법계도》에 보이는 화엄사상은 한국 화엄사상의 백미로 귀중히 여겨져 왔으며 한국불교 의례에도 깊숙이 들어와 〈법성게〉가 즐겨 독송되었고, 도인을 따라 도는 대장경의 정대불사도 해인사에서 해마다 열려왔던 것이다."

35) 전해주, 『화엄의 세계』(민족사, 1998), p.306.
"一中一切多中一 一卽一切多卽一 一微塵中含十方 一切塵中亦如是
하나 가운데 일체이고 많은 것 가운데 하나이며, 하나가 곧 일체이고 많은 것이 곧 하나이다. 하나의 미세한 티끌 속에도 시방이 들어 있고 일체 티끌 속에도 시방이 들어있다."

황색처인 중대의 진여원 가운데는 니상의 문수부동상을 모시고, 뒷벽에는 누런 바탕에 비로자나불을 위시하여 36화형을 그려 봉안하고 복전승 5원을 두어 낮에는 화엄경과 육백반야를 읽게 하고 밤에는 문수예참을 염하게 하여 화엄사라 이름하라. 보천암을 개창하여 화장사로 하고 원상 비로자나삼존과 대장경을 봉안하라. 복전승 5원을 두어 낮에는 장문장경을 읽게 하고 밤에는 화엄신중을 염하게 하여 해마다 백일동안 화엄회를 열게 하여 법륜사라 이름하라[36].

고 했던 것이다.

이어 문수갑사를 다섯 寺社의 집결장으로 하고 복전숭 칠원을 두어 주야로 화엄신중예참을 행하라(<文殊岬寺>爲社之都會, 福田七員, 晝夜常行《華嚴神衆禮懺》)는 구절이 뒤따른다. 이 구절은 특히 보천이 생각하는 화엄의 성격을 잘 말해준다. 즉 화엄신중이란 화엄을 지키는 무리들이라는 말이니 화엄에서 말하는 多卽一의 세계라기보다는 一卽多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화엄일승법계도에서 말하는 一中多일 수도 있을 것이다[37].

화엄일승법계도는 40화엄, 60화엄, 80화엄의 요체를 7언 30구 210자로 나타낸다. 한길로 이어지는 게문은 여래의 일음인 선교방편을 뜻한다. 사면은 사섭법을, 사각은 사무량심을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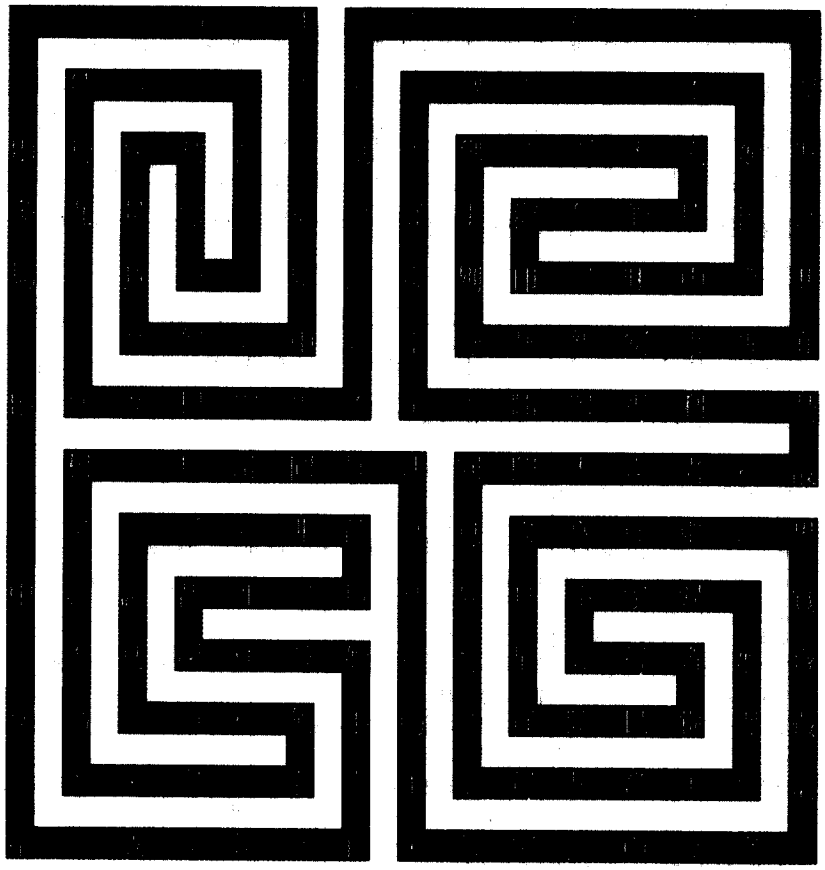
---

36) 『三國遺事』「臺山五萬眞身」
"黃處中臺, <眞如院>, 中安泥像文殊不動, 後壁安黃地畫毗盧遮那爲首三十六化形, 福田五員, 晝讀《華嚴經》·六百《般若》, 夜念《文殊禮懺》, 稱<華嚴社>; <寶川庵>改創<華藏寺>, 安圓像毗盧遮那三尊及《大藏經》, 福田五員,《長門藏經》, 夜念《華嚴神衆》, 每年設華嚴會一百日, 稱名<法輪社>"

37) 전해주, 『화엄의 세계』(민족사, 1998), p.312.
"진성은 아주 미묘해서 진성이라는 그 자성을 국집하지 않고 여러 연을 따른다는 것이다. 외상은 연기의 체를 이러한 진성 2구로 보이고 있다. 진성이, 자성이라는 것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성자리를 고집하지 않는 것이 무자성이다. 그래서 온갖 경계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개되는 제법은 일중다다중일, 일즉다다즉일로 요약되는 경계이다.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고 하나도 일체 가운데 하나이니 이는 중문(中門)으로서 상입·상용 경계이다. 또 일즉일체라 하니 즉문(卽門), 즉 상즉경계이다. 외상 역시 화엄의 연기세계를 상입 상즉의 중문과 즉문으로 나타낸 것이다."

게문은 도인의 가운데 있는 법에서 시작된다. 45개의 각으로 꺾어져 불로 귀착된다. 그리고 衆, 즉 僧과 나란히 위치하도록 구성되었다. 마치 불법이 시방 중생의 마음에 사모친 후 다시 불성으로 회귀하는 듯한 앉음새이다. 비유하자면 금강계 만다라의 향하문과 향상문을 종합한 듯한 흐름을 이룬다.

華 嚴 一 乘 法 界 圖



성신회 또는 근본회라고도 부르는 갈마회는 금강계 9회만다라에 있어서 향하문의 출발점이자 향상문의 종착점이다. 즉 갈마회에서 출발하여 아래로 삼매야회에서 시계방향으로 첫 번째 꺾어지고 미세회에서 두 번째 꺾어져 위로 올라간다. 다시 공양회를 지나 사인회에서 세 번째 꺾어진 후 일인회를 거쳐 이취회로 가서 네 번째 꺾어진 후 항삼세갈마회를 거쳐 항삼세삼매야회로 이르는 힘의 흐름을 향하문이라 한다. 그리고 그 반대로 흘러 다시 갈마회에 귀착되는 힘이 향상문이 된다.

이것은 중생에서 불로 향해 닦아가는 향상적인 생기차제의 길과 불에서 중생계를 향해 제도하려는 향하적인 구경차제의 활동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일경에서 말하는 바, 시방세계의 정등각과 삼세 십체의 삼신불에게 귀의하는 한편 일체의 대승법, 불퇴보살중에게도 귀의한다. 또한 모든 진언과 밀인에도 귀의한다는 자세일 것이다[38].

만다라는 그 형태에 있어서 중앙과 주변의 힘의 흐름에서 유사할 뿐 아니라 오방불 사상에서도 유사점을 보여준다고 지적되기도 한다[39]. 그리고 그 유사성은 화엄일승법계도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그러나 화엄일승법계도를 화엄만다라라고 부를 때 그 철학은 양계만다라의 영향을

---

38) 『大日經』「增益守護淸淨行品 2」(『大正藏』 18, pp.46-47).
"歸命十方正等覺, 三世十體具三身 歸命一切大乘法 歸命不退菩薩衆 歸命諸明眞實言 歸命一切諸密印."

39) 만다라의 기본 형태는 티벳어로 dkyil(중앙) 'khor(주변)라 한다. mandala는 manda를 중심, 혹은 본질, la는 소유를 의미하는 접미사로 해석하기도 한다. 오방오불 또는 사방십육불사상 역시 중앙과 주변의 철학에서 나온다.
The basic form of a mandala (Tib: dkyil 'khor) is comprised of a center (dkyil) and a circumference ('khor). There are two basic designs: (1) a deity in the center and a deity in each of the four directions, making five, or (2) a deity in the center, a deity in each of the four main directions, and a deity in the intermediate directions, such as northwest or southeast, making nine deities. The Transmission of Enlightenment by Chris Wilkinson
http://www.tibgetart.com/exhibits/transmission.cfm/23.html

받았다기보다는 오히려 양계만다라의 원시형태라고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화엄일승법계도의 저자가 의상이라는 전제하에서 생각해볼 때, 義湘의 생애를 625~702으로 본다면 그 활동시대는 선무외가 대일경을 번역하던 724년이나 불공이 금강정경을 번역하던 753년보다 훨씬 이전이기 때문이다. 물론 밀교는 반야, 유가 등을 비롯하여 화엄의 바탕에서 전개된 이를테면 정통 대승불교를 표방하고 있다.

2. 오방오불

신라 화엄불교의 상징적 구조물 중에 불국사가 있다. 불국사는 이름 그대로 불국토에 세워진 사찰이다. 최치원은 일찍이 화엄불국사아미타불화상찬에서 "동해 동산에 아름다운 절이 있으니 명호가 화엄불국이다.(東海東山有佳寺 華嚴佛國爲名號)"라고 읊고 있다. 신라가 화엄 불국토라는 사실이 최치원의 시대에는 보편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불국사가 오대산의 화엄밀교에서 영향을 받은 이른바 화엄만다라의 구조를 가진다는 주장이 있다. 삼국유사에는 751년 불국사가 김대성에 의해 중창되었다고 했으므로 충분히 당시 신라의 불교사상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대산에서 확립된 가람만다라의 철학이나 740년대 보천스님의 유언 및 오방불사상이 바탕이 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이다[40].

그러나 『佛國寺古今創記』에는 751년 김대성의 중창 이전인 540년(법흥왕 27)에 불국사가 개산했다고 했다[41]. 이 경우라면 오대산 사상이 불국사의 창건에 영향을 주었다기보다는 오대산과 불국사에 공통으로 영향을 준 신라인의 보편적인 공감대가 화엄밀교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

40) 홍윤식, 『만다라』(대원사, 1992), pp.114-115.
41) 姜裕文, 『佛國寺古今創記』(慶北佛敎協會, 昭和12年=1938), p.1.

그 증거로써, 불국사 역시 오대산과 유사한 오방불 사상을 보여준다. 『佛國寺古今創記』에는 574년(진흥왕 35) 중창시 비로자나불과 아미타불을 모셨다고 했다. 그것이 오늘날 비로자나를 모신 비로전과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를 상징하는 안양문, 극락문, 극락전이라는 건축물로 남아 있다. 또 고금창기에는 관음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1969-73년 문공부 발굴조사와 복원공사로 극락전 무설전과 함께 관음전이 복원된 바 있다. 그리고 고금창기에는 지장전이 있었다 하니 바로 오대산 화엄만다라와 같은 구조가 된다. 정확한 방향은 아니지만 중앙의 비로, 동 관음, 남 지장, 서 미타, 북 석가의 구도이다. 나아가 비로전을 가운데 두고 회랑을 둘렀으니 양계 만다라, 특히 금강계만다라의 구획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역사가 깊은 古刹들의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불국사는 오랜 세월 사상의 변천과 그에 따른 가람배치 및 건축물을 신축, 중·개축이 있었다. 그러므로 석가탑과 다보탑에서 법화경 견다보품의 사상을, 석가불의 영산불국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동시에 보여주기도 하고 회랑 구조에서 만다라의 영향을 유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창건의 이념인 화엄의 세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불국사 가람배치의 중앙에 비로전과 회랑의 중심에 무설전을 두어 비로자나의 해인삼매와 언어 및 분별사량을 초월한 무설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전제하에서 금강 오불을 도표로 만들어 보자. 금강계 만다라의 근본회를 중심으로 하는 오불은 대일여래를 중심으로 동 아촉, 남 보생, 서 미타, 북 불공성취였다.

方位	五色	金剛5佛	原語	部族	印	座	三昧耶	五智	識	五蘊	煩惱
中	白	大日如來	MahaVairocana	如來	智拳	사자	塔(寶輪)	法界體性智		色	癡
東	靑	阿閦佛	Aksobbhya	金剛	觸地	코끼리	金剛杵	大圓鏡智	阿賴耶	行	瞋
南	黃	寶生如來	Ratnasambhava	寶	與願	말	寶珠	平等性智	末那	受	慢
西	赤	阿彌陀佛	Amitabha	蓮花	禪定	공작	蓮華	妙觀察智	意識	想	貪
北	綠	不空成就	Amoghasiddhi	羯磨	無畏施	금시조	羯磨(劍)	成所作智	前五識	識	嫉

오대산과 금강산, 그리고 불국사에서 우리는 비로자나를 중심으로 동관음, 남 지장, 서 미타, 북 석가의 오불에 의한 만다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제 그 신라 화엄만다라의 원형을 찾아갈 때가 되었다. 보천이 유언으로 남겼던 기록, 즉 '산중에서 행하는 바 우리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山中所行輔益邦家之事)'을 중심으로 도표를 만들어 보자[42].

---

42) 『三國遺事』「臺山五萬眞身」

"將圓寂之日, 留記後來山中所行輔益邦家之事云: 「此山乃<白頭山>之大脉, 各臺眞身常住之地. 靑在東臺北角下·北臺南麓之末, 宜置<觀音房>, 安圓像觀音及靑地畫一萬觀音像, 福田五員, 晝讀八卷《金經》·《仁王》·《般若》·《千手》呪, 夜念《觀音禮懺》, 稱名<圓通社>; 赤任南臺南面, 置<地藏房>, 安圓像地藏及赤地畫八大菩薩爲首一萬地藏像, 福田五員, 晝讀《地藏經》·《金剛般若》, 夜《占察禮懺》, 稱<金剛社>; 白方西臺南面, 置<彌陁房>, 安圓像無量壽及白地畫無量壽如來爲首一萬大勢至, 福田五員, 晝讀八卷《法華》, 夜念《彌陁禮懺》, 稱<水精社>; 黑地北臺南面, 置<羅漢堂>, 安圓像釋迦及黑地畫釋迦如來爲首五百羅漢, 福田五員, 晝讀《佛報恩經》·《涅槃經》, 夜念《涅槃禮懺》, 稱<白蓮社>; 黃處中臺, <眞如院>, 中安泥像文殊不動, 後壁安黃地畫毗盧遮那爲首三十六化形, 福田五員, 晝讀《華嚴經》·六百《般若》, 夜念《文殊禮懺》, 稱<華嚴社>; <寶川庵>改創<華藏寺>, 安圓像毗盧遮那三尊及《大藏經》, 福田五員, 《長門藏經》, 夜念《華嚴神衆》, 每年設華嚴會一百日, 稱名<法輪社>. 以此<華藏寺>爲<五臺社>之本寺, 堅固護持, 命淨行福田, 鎭長香火, 則國王千秋, 人民安泰, 文虎和平, 百穀豊穰矣. 又加排下院<文殊岬寺>爲社之都會, 福田七員, 晝夜常行《華嚴神衆禮懺》. 上件三十七員齋料衣費, 以<河西府>道內八州之稅, 充爲四事之資, 代代君王, 不忘遵行幸矣."

色	方	位置	置處	影像	安置	畵地	畵像	福任	畵讀	夜念	年設	稱名
靑	東	東臺北角下北臺南麓末	觀音房	圓像	觀音	靑地	一萬觀音像	五員	八卷 金經·仁王·般若·千手呪	觀音禮懺		圓通社
赤	南	南臺南面	地藏房	圓像	地藏	赤地	八大菩薩爲首一萬地藏像	五員	地藏經·金剛般若	占察禮懺		金剛社
白	西	西臺南面	彌陁房	圓像	無量壽	白地	無量壽如來爲首一萬大勢至	五員	八卷 法華	彌陁禮懺		水精社
黑	北	北臺南面	羅漢堂	圓像	釋迦	黑地	釋迦如來爲首五百羅漢	五員	佛報恩經·涅槃經	涅槃禮懺		白蓮社
黃	中	中臺	眞如院	泥像	文殊不動	黃地	毗盧遮那爲首三十六化形	五員	華嚴經·六百般若	文殊禮懺		華嚴社
			寶川庵(華藏寺)	圓像	毗盧遮那三尊/大藏經			五員	長門藏經	華嚴神衆	華嚴會一百日	法輪社
			文殊岬寺					七員	華嚴神衆禮懺	華嚴神衆禮懺		

도표에서 보듯 오대산 신앙은 적멸보궁의 기도처인 중대 진여원에 문수부동의 니상을 모시고 황지에 그려진 비로자나불의 36화형으로 집결된다. 그리고 화엄경 전독과 문수예참을 행할 수 있는 화엄사를 결성하고 있으므로 740년경 보천이 오대산 사상을 체계화할 때 당시의 가장 이상적인 사상으로 생각되었을 화엄의 문수신앙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화엄의 문수신앙은 그 자체가 밀교화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 먼저 중국에서의 밀교화이다. 720년 경에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진언종의 付法 6조 不空金剛(Amoghavajra 705-774)이 제자인 함광과 함께 오대산 신앙을 펼치고 있었다. 불공은 731년 스승인 금강지의 유지를 받들어 금강정경을 구하기 위해 인도의 佛牙寺에서 보현아사리로부터 비밀교의 대법을 전해받았다. 746년 다시 중국에 오자 현종이 귀의하고 灌頂을 받았다 했다. 그런 만큼 화엄 밀교화에 있어서 불공금강은 막강한 영향력을 구사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무렵, 신라에서는 명효, 의림 등 밀교승이 당나라의 밀교사

조를 직수입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740년경 형성된 보천의 화엄문수신앙이 밀교화할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이 마련되고 있었던 것이다.

화엄과 마찬가지로 태장계, 금강계 밀교 역시 중국과의 접촉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양계 밀교는 성숙한 신라의 화엄과 화엄선, 그리고 화엄밀교를 밀치고 충분한 영역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오대산에 자장이 처음 초암을 지을 때인 636년이거나 보천 효명이 진여원을 창건할 무렵인 성덕왕 4년 705년부터 오대산에 양계 밀교사상이 자리잡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금태 밀교경전의 결집 자체가 자장과 보천 후대의 일이기 때문이다. 인도에서 밀교의 중요경전이 결집된 것은 650-700년 경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 본격적으로 밀교가 조직화된 것은 대일경, 금강정경이 번역된 이후의 일이라고 본다. 즉, 중국에서 선무외삼장과 일행이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 즉 大日經을 번역한 것이 725년이었고, 불공이 金剛頂一切如來眞實攝大承現證大敎王經, 즉 金剛頂經을 번역한 것이 753(천보 3년)이었다.

그렇게 보면 오대산 만다라와 금강계 만다라의 유사점은 영향관계라기보다는 대등관계일 수 있다. 그것은 문수사상의 화엄밀교적 성격에서 추론될 수 있다.

文殊師利法寶藏陀羅尼經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婆伽梵 부처가 정거천궁에 있을 때 세존이 금강밀적 보살에게 말하였다. '내가 멸도한 후 섬부주의 동북방에 나라가 있어 大辰那라 이름한다. 그 국토 중에 산이 있는데 五頂이라 부른다. 문수사리동자가 遊行居住하면서 제중생을 위해 설법중이다.'[43]"라 했다.

그 문수사리 동자가 누구신가. 비로자나불의 자내증으로서의 공덕법신

43) 『佛說文殊師利法寶藏陀羅尼經』(『大正藏』 20, p.791.)
"我滅度後於此贍部洲東北方 有國名大辰那 其國中有山號曰五頂 文殊師利童子遊行居住 爲諸衆生於中說法
섬부주는 대지 전체를 일컫는 말이다. 이 땅의 중앙에 염부수가 있어 나무 이름을 따라 한다."

인 문수사리보살이 변화법신으로 나타난 것이 문수동자이다. 화엄과 밀교를 관통하여 청정만다라, 가람만다라, 산천만다라 사상체계의 뼈대를 형성한 오대산 문수신앙의 주역이었다. 또한 그 만다라 사상의 핵심을 신앙화하고 천년 불교의 터전을 마련한 것이 신라의 화엄밀교였던 것이다.

V. 결어

한국불교에 있어서 오대산의 의의는 신라불교의 독자적 이론, 사상 및 신앙체계를 확립했으며 그것은 한국불교의 원형적인 신앙체계로 자리잡았다는 데 있다. 오대산은 그리하여 번화한 종풍을 선양했다기보다는 불두골을 모신 청정만다라, 오방오불에 의한 가람만다라와 소재도량 및 호국불국토사상에 의한 산천만다라의 구심점으로서 한국 불교신앙의 의지처가 될 수 있었다.

그 신앙의 바탕에 문수신앙이 있었다. 중국에서 비롯하였으되 신라에서 육화하고 왕실과 민중의 튼실한 귀의와 신봉을 받았던 화엄의 문수사상은 비슷한 밀교화의 과정을 거친 관음지장사상을 수용하여 오대산 사상의 중심축이 되었을 뿐 아니라 착실한 민중신앙적인 지지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그리하여 화엄과 선이 융섭된 이른바 화엄선은 청정불국토사상을 산천만다라로 확대하게 된다. 그것은 전통적인 오방사상과 신라토속화한 관음지장사상을 바탕으로 오대산 뿐 아니라 금강산에도 화엄불국적인 만다라사상을 형성하게 된다. 소재도량과 호국불국토사상은 밀교적인 의례와 영험을 받아들여 불국사 등 호국불찰의 창건 이념과 공유함으로써 오대산사상의 입지를 강화하게 된다. 나아가 화엄일승법계도의 힘의 흐름과 함께 오대산의 오방사상에 따른 가람배치는 금강계 만다라와 동

일한 접근방식 및 鑄型을 형성함으로써 한국적인 만다라의 원형을 창출했다고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불국사의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신라 불교는 중국에서 밀교 경전이 번역되기 이전에 화엄의 바탕에서 형성해 나갔던 화엄밀교가 금강계 만다라의 사상체계와 비견할만한 교리의 발전을 이룩하였으리라는 가정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한국불교에 있어서의 화엄밀교적 원형으로서의 오대산 만다라는 중국에서의 밀교 발전단계와는 무관히 한국적 밀교 및 만다라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독자성의 관점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